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7월 21일(주일) 제1501호



사진은 새로 건축한 남양주온누리교회 전경.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

7월 21일 오후 2시 본당,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 연면적 6,824.05m²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를 7월 21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드린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입당감사예배는 찬양과 기도, 특송, 설교, 건축 경과보고, 감사패 증정, 감사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회서기 이인용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특송은 온누리장로합창단이 한다.

새로 건축한 남양주온누리교회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82번안길 120-14다

산동 6177번지)번지다. 지하 5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6,824.05m²다. 지하 4층과 지하 5층 주차장, 지하 3층 주차장과 기쁨홀, 지하 1층과 지하 2층 본당, 성가대실, 소예배실, 지상 1층 로비, 2층 차세대 예배실, 회의실, 3층 차세대 예배실, 다문화 국제부 예배실, 4층 차세대 예배실, 여성사역실, 5층 목회지원실, 교역자 사무실, 옥상 정원 등이 있다.

이기복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담당)는 “남

양주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새 예배당을 건축했다”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 예수님 닮은 성도, 차세대를 깨우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남양주온누리교회는 2004년 11월 7일 국내 다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음세대를 세우며,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

문의: 031-515-3521~4

/ 김다예 기자 daa2@onnuri.org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7월 29일~8월 2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오는 8월 2일(금)은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다. 온누리교회는 7월 29일(월)부터 8월 2일(금)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으로 정하고,故 하용조 목사를 기억하고, 그리는 시간을 보낸다. 추모기간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새벽기도회에서는故 하용조 목사의 생전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상영한다. 설교 주제와 본문은 7월 29일 ‘참된 양식’(요 4:27-42), 30일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8:12~20), 31일 ‘밀알의 신비’(요 12:17~26), 8월 1일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1~7), 2일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예수님’(요 21:15~25)이다. 서빙고 오전 5시 30분, 양재 오전 5시 30분, 캠퍼스는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팽택, 인천, 양지 오전 5시 30분, 강동 오전 6시 20분, 영종 오전 6시에 새벽기도회를 한다. 서빙고 2부 새벽기도회는 기존대로 공동체 성경읽기로 진행된다.

8월 2일(금) 오전 11시에는 Acts29비전 빌리지 하용조기념채플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3주기 추모예배’를 드린다. 유가족과 교회 리더십을 중심으로 드린다. 박종길 목사가 사회를 보고, 차준한 장로 대표기도, 블러썸채퍼 특송, 이재훈 위임 목사 메시지, 강부호 목사 축도 등이 이어진다.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 실황을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중계한다.

QT하고 빙수먹자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차세대 슬기로운 방학생활 ‘QT하고 빙수먹자’가 7월 22일(월)부터 8월 17일(토)까지 이어진다. QT하고 빙수먹자는 차세대들이 방학 동안 QT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영장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 좋아요>, <새벽나라> 등 차세대 QT 교재와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활용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 QT 모임’도 진행한다. 참여 일수에 따라 빙수를 선물로 보내준다. 가족 QT 모임을 포함해서 총 24번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여름 캠프가 한창이다. ‘하나님의 용사, 다윗!’을 주제로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7월 21일(일)까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8월 11일(일)까지 이어진다. 파워웨이브(중고등부)는 8월 12일(월)까지 ‘獨對(독대)’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한다.

아웃리치 간증 모집, 동영상 공모전

사진과 간증, 60초 미만 아웃리치 영상

2024 여름 아웃리치의 은혜를 온 누리와 함께 나눈다. <온누리신문>에서 아웃리치 사진과 간증 원고를 모집한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까지 간증(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용지 1장)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단체 사진보다 역동적인 사진, 세로 사진보다 가로 사진이 좋다.

사진과 간증을 보낸 성도들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준다.

미디어본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동영상 공모전 ‘찍자, 아웃리치!’를 개최한다. 올해 여름 아웃리치 영상을 60초 미만으로 제작해서 응모하면 된다. 영상에는 비공개 지역이나 노출되지 않아야 할 정보가 들어가는 안 된다. 제작 영상을 미디어본부 이메일(onnurismar

@gmail.com)로 보내거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온누리아웃리치2024) 하면 된다. 1등 50만 원(1팀), 2등 30만 원(3팀), 3등 10만 원(5팀) 상당의 배달앱 상품권을 준다. 위트상(5팀), 은혜상(5팀)에게는 카페 상품권을 준다. 입상한 영상은 온누리교회 SNS 계정에 게시한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해외 144팀 2,582명, 국내 226팀 2,644명(7월 19일 기준)이 참가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도행전〉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을 때 복음에서 벗어난 진리를 전하는 이들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열린 교회 총회입니다.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모세가 가르친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오랜 토론과 논쟁 끝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뤄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복음에 기초한 진리인지를 명확하게 하자’고 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과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회의가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회의 끝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는 결정을 교회가 함께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 받는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율법을 폐지하셨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하던 모든 기능이 성취되었기에 더는 조문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했습니다(7~11절).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12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 구절로 요약했습니다.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을 강조하기 위해 그들의 발언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권위를 인정받던 야고보가 구약 〈아모스〉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이방인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임을 설교합니다(15~21절).

하나님이 율법에 근거해서 세워진 다윗의 장막은 무너지게 하셨지만, 다시 일으키시는 다윗의 장막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장막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 모든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모스〉 말씀이라고 야고보가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짐을 지게 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첫 번째 원칙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계를 고려한 ‘배려’와
‘전통’과 ‘정통’을 구별

야고보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피를 멀리하자고 편지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습니다. 야고보가 급하도록 권고한 것은 네 가지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익숙하게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가지는 지키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자유하다. 먹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원칙은 자유지만, “만일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음으로써 시험에 드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고려한 배려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가 제시했던 안과 통하는 결정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면서 동시에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은 배려한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원칙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원칙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때도 있습니다. 원칙과 관계가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에 이르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전해짐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교회가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통과 정통을 구별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은 오랜 시간이 흐름으로써 고착된 것입니다. 전통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전통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통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정통(orthodox)이 전통(tradition)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전통이 정통을 변질시킵니다.”

교회의 오랜 습관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옳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전통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익숙해질 뿐입니다. 전통이 정통에 합당하다면 계속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전통은 버릴 수 있게 되었는데,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장애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라는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결정이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정입니다. 단지 오래된 것이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성이 있는 것이라면 바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율법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갈 5:4). 율법의 짐을 벗게 하고, 은혜의 힘을 얻게 하는 결정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최초의 종교개혁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은혜(sola gratia), 오직 믿음(sola fide)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시대에 국한된 유물이 아니라 정통입니다.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결정보다 성경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교회가 제대로 붙잡았을 때 바로 서게 되었고, 이 진리를 버리거나 오해했을 때 심각한 배교와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빠진 결과가 중세였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믿음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중

세교회와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통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적인 의로움이 없어도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전가(imputation)’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세 가지 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인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그 어떤 의로움이 없고,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는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가 전가되었음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는 날이 올 것을 예언하는 제도였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 된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이나 공로나 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결정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고 은혜의 힘을 얻는 결정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모두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행함을 따라 우리를 대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결정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로잔운동 기획시리즈 - 로잔의 오해와 진실

그들은 왜 로잔을 공격하는가? ①

박형진 교수가 답하는 ‘로잔의 오해와 진실’

2024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이하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교회 안팎에서 로잔운동과 제4차 로잔대회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근거 없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온누리신문>에서는 로잔운동에 대한 성도들의 궁금증과 오해와 진실 등을 묻고 답하는 코너를 마련했다. 로잔운동과 제4차 로잔대회의 의미와 유익 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첫 번째 질문에는 박형진 교수(로잔연구교수회,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가 답했다.

/ 편집자 주

로잔운동과 WCC, 신사도운동이 연관 있다고 하는데 진실인가?

“그렇지 않다. 로잔운동(이하 로잔)과 WCC(세계교회협의회)는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 로잔은 복음주의의 한 줄기이며, 복음주의 운동의 기류는 WCC(1948년 창립) 이전 이미 성경의 무오성과 권위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운동이다. 1846년 영국의 복음주의연맹(EA), 1943년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 등이 있었다. 그렇다면 WCC와 로잔은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했고, 그 지향점이 어떻게 다른가? 20세기 들어 오면서 개신교 역사에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소위 ‘에큐메니컬운동’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운동 혹은 일치운동이라 불린다. 이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 불리는 19세기를 뒤이은 후속적 결과이기도 하다. 보다 협력적이고, 전략적 선교를 목적으로 세계 선교사대회가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서구 선교단체가 중심이 된 모임이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국제선교사협의회(IMC)를 비롯해 몇몇 연합운동들이 파생되는데, 이 연합체들이 다시 모여 1948년 WCC가 조직되었다. WCC는 마치 국제연맹과 같이 교회 간의 연합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교단과 교회들이 멤버십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1921년 창립된 IMC는 선교사대회를 하다가 1961년 WCC와 통합해 WCC 내 ‘CWME’(세계선교 및 전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WCC는 20세기 격랑의 세계 기류에 관심을 가지고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주의적인 유럽 신학의 영향을 받았다. WCC의 선교 신학도 구령에 불타는 전도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영역에 대한 현안적 관심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은 WCC 총회와 CWME 대회들이 창출한 문서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잔은 WCC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러한 변

화들에 대한 우려와 반작용으로 복음주의자들의 대응과 결성체가 나타나는데, 1951년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 1966년 휘튼대회와 베를린대회, 1970년 프랑크푸르트선언 등이 그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결집된 것이 1974년 시작된 로잔이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1968년 WCC 읍살라총회에서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규정했고, 로잔운동이 창출되기 1년 전인 1973년 열린 WCC 산하 CWME 방콕대회에서 천명한 ‘오늘의 구원’은 그 구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았기에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에 기반한 전도의 우선성을 옹호하고, 세계 복음화를 목적으로 1974년 로잔대회를 결성했다.

로잔은 신사도운동을 따르거나 옹호하는 운동이 아니다. 20세기 또 하나의 특징이 바로 ‘성령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신사도운동은 성령운동의 한 분파로 소위 ‘제3의 물결’이라 불리는 운동 중 하나다. 이 운동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역사가 1세기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과 특히 사도직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적 전쟁에 대한 전략적 방안으로 지역의 영, 영적 도해, 땅 밟기 등과 같은 것을 표방한다. 이에 대해서 복음주의권 교회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고, 입장과 이해가 다르다. 로잔은 성령의 역사와 그 사역을 인정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1~3차 대회의 주요 문건인 <로잔언약>, <마닐라선언>, <케이프타운서약> 그 어느 것도 신사도운동이나 이 운동이 표방하는 논쟁적 요소들을 옹호하고 있지 않다.”

진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왜 로잔을 공격하는가? 공격의 근거가 무엇인가?

“요사이 회자되는 로잔에 대한 비판을 들어 볼 때 공격의 근거는 다음 몇 가지에 있다.

첫째, 로잔이 WCC와 같이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고, 복음 전도의 우선성보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잔의 문서들을 보면, 많은 사회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로잔이 WCC와 다를 바 없다거나 WCC의 아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곡해다. 사회적 책임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신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는 예수님을 본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강조하는 핵심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따라서 사회적 책무를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WCC와 로잔의 차별성은 성경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 전도의 필연성과 우선성, 죄의 심각성 등과 같은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강조점은 로잔의 첫 번째 문서인 <로잔언약>의 서두에 잘 적시되어 있다. 그 이후 <마닐

라선언>과 <케이프타운서약>에도 복음주의의 핵심 가치는 계속 강조되고 유지되고 있다. 로잔의 복음과 전도는 사회복음, 사회구원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은 진정한 회심, 즉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한 죄 사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이다.

둘째, 로잔이 종교다원주의적이고, 종교 간 대화를 부추긴다고 하는 데 사실이 아니다. 로잔문서는 타 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언급하고 있다. 그간 상대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한 복음증거의 입장을 견지한다. 그러나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고, 나름 구원의 길이 있기에 기독교만 옳다는 전제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WCC가 지향하는 종교 간 대화의 입장과 다르다. 로잔의 전도신학은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다.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다른 전통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모르는 명목상의 신자라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표방한다. 로잔은 1974년 1차 대회 때부터 탈프 윈터 박사가 강조한 미전도종족의 개념을 통해서 그 어떤 운동보다 세계 복음화에 기여했다. 이제 로잔은 해외 미전도종족 선교뿐 아니라 국내 지역 전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신사도운동과 관련해서 피터 와그너 박사를 비롯한 신사도운동가들이 2차 로잔대회의 강사들이었기에 로잔이 신사도운동을 옹호하고 확산시켰다고 한다. 이것은 대단히 비약된 논리이다. 피터 와그너가 주강사로 서지 않았으며, 전체 세션에서 신사도운동을 주창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로잔은 1989년 마닐라에서 열린 2차 대회에 이르러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는 오순절 및 은사주의 교회들을 포용했다. 그들이 핵심적인 복음을 믿고 따르는 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원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비서구지역의 많은 교회가 영적 전쟁이나 능력대결, 치유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러한 사역에 민감한 교회들이었다. 당시 서구의 복음주의는 비록 성경의 권위는 강조했지만, 계몽주의의 영향과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초자연적 영역에 입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열려 있는 교회들이다. 2차 로잔대회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로잔의 복음주의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인정하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의 이름만으로 로잔을 신사도운동이라 하는 것은 침소봉대이고,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로잔을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년크리스천에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는가?

“로잔은 처음부터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강

조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를 마치 복음 전도로 출발한 로잔운동이 전도의 중요성이나 우선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관심으로 그 본질이 변질했다고 이야기하거나 WCC로부터 받은 영향력 내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는 것은 로잔의 정신과 성격 자체를 잘못 파악한 오해다. 로잔은 50년 역사를 거쳐 제4차 대회를 맞이하고 있다. 1차 로잔대회는 복음의 함의, 즉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개인적 영역에서의 영혼 구원과 사회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2차 대회에서는 그 영역이 영적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3차 대회에서는 창조세계의 영역으로 확장되어 창조세계의 돌봄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적 사명을 강조했다. 4차 대회에서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영역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인공지능 시대에 이르러 어떻게 이들 영역에서 복음을 증거할지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맥락이 확장되는 것을 본다. 분명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상실하거나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포기했다는 게 아니다.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처럼 로잔은 시기마다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역들을 포기한다면 책무를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역을 악의 세력에게 빼앗기고 말 것이다.

로잔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즉 ‘대위임령’ 실천을 중시한다. 신약성경의 4복음서에 나오는 지상명령의 포인트를 보면 제자도(마태복음), 복음전파(마가복음), 회개운동(누가복음), 죄 용서(요한복음)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죄 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메시지가 능력과 함께 전파되며, 참된 제자도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의 본질인 용서와 화해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제4차 로잔대회의 주제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이다. 복음은 전하고 선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수를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 주셨다. 말과 삶이 함께 가는 증거가 바로 복음의 총체적 증거이고, 로잔의 정신이다. 로잔운동은 결국 양날의 칼이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가 무시한 영역에 대한 반박이고, 근본주의는 물론 복음주의 내에서도 등한시한 영역에 대한 반성이다. 단순 논리나 비약적 논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로잔 관련 질문 신청: hha0@onnuri.org



박형진 교수
(로잔연구교수회,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학)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현상, 해석, 그리고 세계관

모든 현상은 해석의 영역이다. 현상이 먼저요, 해석은 그다음이다.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상학적 해석학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역사란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가 만나는 역사서술은 주관적 해석의 산물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과 동시에 역사적 기록물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역사적 문헌을 해석하는 일은 독자에게 두 가지 무거운 과제를 요구한다. 첫째, 성령의 조명을 받아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둘째, 텍스트와 해석자 사이의 생산적이고, 창조적 대화를 통해 정황 속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성경 해석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 일반 성서 해석학이다. 이는 문법적, 역사적, 문화적, 문맥적, 언어 구문적, 신학적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둘째, 특수 성경 해석학이다. 이는 비유, 알레고리, 모형, 예언 등 특별 장르에 적용하는 규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둘 다 성경을 거룩한 말씀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초대 교부와 신학자의 해석을 참조해 성경을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학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현대철학적 해석까지 사용해 성경을 폭넓게 연구한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성경은 이야기다. 이

아기는 경험을 언어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고,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물론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 선형적 감성, 논리, 직관이 그것이다. 이것은 경험을 담는 그릇이다. 산다는 건 그 자체가 경험이다. 주체는 반성을 통해 경험에 형태를 부여한다.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때 그것은 상징과 은유와 이야기가 된다. 살아있는 이야기, 존재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다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 여백에 무한한 뜻이 감추어져 있다. 이것이 성경 해석학의 영역이다.

세계관은 해석학이다. 성경뿐 아니라 역사, 정치, 문화, 예술, 교육,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 이면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거기 감추어진 의미를 찾는다. 해석학적 틀이 잘못될 때 색안경을 낀 것같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한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개인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세속주의, 신비주의, 해체주의 등 포스트모더니즘 세계관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지켜가는 성경적 세계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세계관이요, 둘째, 구속사적 세계관이요, 셋째, 종말론적 세계관이다.

〈사도행전〉 13장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는

성경적 세계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첫째, 수레바퀴 속 수레바퀴이다.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그리스도 탄생까지 약 2천 년 방대한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약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 만민 구원과 만유의 회복이다. 역사는 겉으로 볼 때 도전과 응전,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계신 분이 있다. 그분은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은 역사를 통해 역사를 이뤄 가신다. 이것을 수레바퀴 속 수레바퀴라고 부른다.

둘째, 바로 그 사람 예수다. 바울은 〈시편〉과 예언서를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고, 부활을 통해 자신이 왕 되심을 증명했으며, 마지막 날 왕 되신 그분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변증한다. 겉으로 볼 때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셋째, 종말을 향해 전진하는 역사다. 하나님은 우연과 필연 그 섭리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 하나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굴러가고 있다. 예수님은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날 역사는 완성될 것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기 위해 세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첫째, 훈련 없는 성경적 세계관 정립은 없다.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누룩처럼 퍼져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세상에서 바른 세계관으로 무장할 때 현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세계관은 삶이지 지식이 아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지식을 탐닉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절대 진리를 잃고 만다. 성경은 순종을 통해 지혜로 삶에 체화된다. 셋째, 말씀 연구에 힘써야 한다. 성경은 100%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문자 이면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이 평생의 과제다.

지금 눈을 들면 저 멀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는 게 보인다. 그날 온 인류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될 것이다. 우리 모두 혼돈하

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이 깃든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성경과 역사 그리고 사회를 바르게 해석하며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그분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살자. 아멘



유현목 목사
(온누리 세계관학교 담당)

특별기고

주류 교단의 끝은 어디인가?

연합감리교회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 하나였다. 1천1백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거의 모든 동네마다 있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수적으로 감소했고, 교리적으로 타협한 오늘의 연합감리교회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하게 되었다. 심지어 지난달 기괴한 내용들로 가득했던 총회에서 감리교는 마지막 타협안으로 볼 수 있는 ‘자칭 동성애자’를 목회자로 인정하는 안을 환영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년 동안 남아있는 보수파, 특히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수의 대의원은 교단이 완전히 자유주의화 되는 것을 저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7천6백 개 이상의 교회가 연합감리교회를 떠났다. 대부분 교단이 결혼과 성직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연합통신’은 이번 투표를 축하한 한 레즈비언 감독의 말을 인용했다.

“단순해 보이지만 50년 동안 사람들의 삶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을 제한해 온 규정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게와 힘을 지닌 것이다.”

사실 그녀가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2천 년 기독교의 가르침과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성령이 계시하신 모든 것과 모순된다. 며칠

전, 백만 명이 넘는 서아프리카 감리교 성도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했다. 라이베리아의 대의원 제리 쿨라 목사는 아프리카 대륙의 많은 감리교 성도들을 대변하며 성을 새롭게 정의한 연합감리교단의 결정을 “진리로부터 심각하게 표류된 것”이라 말했다. 또한 “교회는 이제 문화를 사고 있다. 성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감리교 교회는 변했다”고 발언했다.

북미의 자유주의 감리교 성도들은 이제 사실상 교단이 망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 세계 보수적인 감리교 성도들은 전통을 지키는 생명줄 역할을 해 왔고, 지금도 그 생명줄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이 사라진 지금 대부분 고령의 백인이며, 죽어가는 성도들만 육체적, 영적 열매가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 점에서 이들은 주류(mainline: ‘전통’으로도 번역되며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계열과 대비) 개신교회의 큰 흐름을 대표한다.

작가이자, 종교 연구학자 라이언 버지는 최근 주류 개신교 성도가 처음으로 미국 인구의 10%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한때 전통 교단이 국민의 일상, 주일 아침, 정치, 대부분 도심 지역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적인 사건이다. 한때 기독교가 주변부가 아닌 국가 생활의 중심에 있던 한 시대의 종말

이다. 복음주의 교단이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전통 교단의 특정한 책임을 이어받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류 교단이 문화를 잃어버려서 죽어가는 게 아니다. 그들은 문화를 이겼거나 적어도 그 메시지를 세속적 도덕주의자들과 거의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종의 무신론적 종교성을 채택했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다. 동성애적 관계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들 신학의 최종 결실일 뿐이다.

한 세기 전, 장로교 신학자 J.그레섬 메이첸은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저서에서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이며, 궁극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 자유주의가 발견한 예수의 삶의 목적은 실제 예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예수의 가르침에서 분리되고 잘못 해석된 요소들을 현대 프로그램과 일치하도록 표현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권위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기록된 가르침 안에서 선택된 현대적 원리다.”

메이첸이 한탄한 그 과정의 슬픈 결과는 우리 주변에 있다. 주류 개신교는 다른 어떤 기독교적 운동에서도 자랑할 수 없는 큰 유산을

남비한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다. 문화에 알맞은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교단들은 곧 성도들이 진리와 의미를 찾기 위해 직접 문화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 내내 공영 방송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굳이 왜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부르셨던 것을 유지하고,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친히 죽으셨던 그 죄를 ‘정체성’으로 바꾸기를 거부하는 교회와 교단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이후 교회 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전통적인 아프리카에서 보수적인 감리교가 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 교회들은 어떤 교파의 이름을 사용하든 참되고 유일한 그리스도의 이름과 가르침을 충실히 고백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연합감리교회가 어쩌면 모든 주류 개신교단이 추억으로만 남게 된 이후에도 경건한 유산을 이어갈 것이다.

/ 존 스톤스트리트(척 콜슨 기독교세계관 센터 대표, 브레이크포인트 진행, 베스트셀러 작가), 세인 모리스(콜슨 센터 선임작가, 업스트림 팟캐스트 호스트, 콜슨 센터 브레이크포인트 논평과 칼럼, WORLD 등 정기 기고)

원문: breakpoint(20240614)

맛있는 말씀 해설

“...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출 16:1)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으로 신음하며 울부짖었다.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불러 출이집트의 사명을 맡기셨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홍해와 이집트 군대’라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 그들은 오직 불평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능력으로 마른 땅을 건너 광야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계셨다. 하지만 가나안은 다리 하나 건너면 나오는 이집트의 이웃 동네가 아니기에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단순한 지명으로만 언급된 이 한 구절에는 대조적인 두 장소가 등장한다. 바로 ‘엘림’과 ‘신 광야’다.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다. 기껏 찾은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이동한 곳 엘림은 12개의 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

힘겨웠던 출이집트 과정과 험한 광야를 맛보기로 체험한 이들에게 엘림은 천국을 만난 듯한 기쁨과 행복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천국 본향을 향한 나그네 인생을 걷고 있는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광야를 걷고 있다. 때로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왠지 더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 같기도 하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결과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엘림을 만난 듯한 기쁨과 안도감에 젖어 든다.

필자 역시 이스라엘 선교사로 실제 광야를 경험했고, 선교사로서의 탈진을 경험했던 순

간이 있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 펼쳐진 미국 켄터키주의 렉싱턴 선교사 회복센터는 마치 엘림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 이유는 그곳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엘림에서 쉬를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발했다. 아마도 엘림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심 또 다른 엘림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신 광야’였다. 또다시 불평이 시작됐다. 결국, 광야 1세대는 불평과 원망 속에 가나안 땅을 밟아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최종 목적지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신 광야는 그냥 ‘환승역’이었다. 매일 아침 서울의 출퇴근 시간, 소위 지옥철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난다는 것은 꿀맛 같은 순간일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목표

로 하는 최종 종착지를 가기 위해 도착한 환승역에서는 아쉬움을 털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도착했던 신 광야에서 비록 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본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잠깐 도착하는 그곳이 엘림일 수도 있고, 또다시 신 광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은 환승역일 뿐이다. 하

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또 다른 광야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보는 게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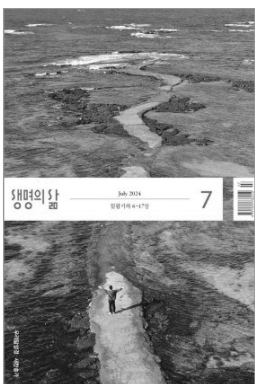


제치윤 목사
(영종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계속된 배역, 하나님의 징계

7월 22~28일
〈열왕기하〉 14:17~17:12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자.

▶유다 왕 아사라는 무리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라가 왕이 된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나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영토를 회복한다. 이는 고난을 당해도 도울 자가 없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신 일이다.

묵상포인트 2: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조가 유지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뀐다. 이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결과다. 반란과 악행으로 불의하게 얻은 왕권의 결국이 어떠한지, 불의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묵상하자.

묵상포인트 1: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다. 이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사인이다. 죄의 길로 행함에도 도움이 필요한 북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

▶유다 왕 아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아사라는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다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된다. 북이스라엘 왕 스가라는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의 반역으로 죽는다. 이는 예후의 후손 4대가 왕위를 이으리라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다. 살룸은 재위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 죽는다. 므나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앗수르 정책을 펼친다. 므나헴이 죽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왕이 되지만, 베가가 반역해 왕을 죽인다. 베가 통치 때 앗수르의 침공으로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호세아가 반역해 베가를 죽이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으로 즉위한다. 유다 왕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요담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 유다를 침공한다.

묵상포인트 3: 과거 애굽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섬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패망과 포로로 마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 오래 참으셨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다. 북이스라엘 역사를 신앙의 길에 반면교사로 삼자.

▶유다 왕 아사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악습을 따른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략해 오자 아사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앗수르 왕에게 보물을 주며 도움을 청한

다. 아사스는 앗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이방 신 제단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에도 동일한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앗수르 왕을 두려워해 성전의 구조까지 바꾼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애굽 왕을 의지해 앗수르를 배반한다. 앗수르 왕은 호세아를 옥에 가두고 사마리아를 점령해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간다.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결과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성도의 신앙은 끝이 좋아야 한다. 신앙의 초심을 마지막 날까지 잘 유지하도록 은혜를 구하며 늘 겸손한 자세를 갖자. ▶반란과 악행으로 불의하게 얻은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일, 그 과정에 불의함은 없는지 돌아보자.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에서 세상 가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 ▶아사스는 앗수르 왕을 두려워해 하나님 성전의 구조까지 바꾼다(16:18). 불안하고 두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나와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자. ▶가정, 학교, 교회 등 공동체 미래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군산명성교회를 위해서!

사회선교본부 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에서 섬기는 군산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군산명성교회는 현재 말씀과 찬양을 녹음하고,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제작, 전도 등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섬기는 국내 선교, M국 선교사님을 섬기는 해외 선교, 대학생과 신학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군산명성교회가 이 사역들을 잘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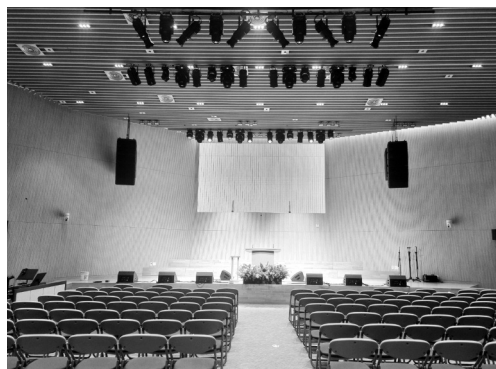
최근 전도를 통해서 3명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타교회 전도사님이 매주 주일 오후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섬겨주고 계십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사역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군산명성교회에서는 주변 지역 전도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에 말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산명성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군산명성교회를 통해 지역이 복음화하고, 생명과 평안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국중대 집사(도시미자립교회지원팀)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남양주온누리교회 새 예배처소



CGN 휴먼 다큐멘터리 '휴먼네켓'

매주 목요일 TV, 유튜브, 기독 OTT '풍당'

CGN이 지난 7월 18일(목) 신규 프로그램 '휴먼네켓'을 선보였다. 휴먼네켓은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조명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비기독교인들과 나누기 위해서 제작한 휴먼 다큐멘터리다. 매주 목요일 TV(오전 10시 20분), CGN 유튜브(오후 5시), 기독 OTT '풍당' (자정)에서 시청할 수 있다.

휴먼네켓 1화에는 노루페인트 부회장 김용기 장로가 출연한다. 김 장로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고백하며 가정과 회사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여준다. 2화에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미남 재형', 3-4화에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NGO 더멋진세상 사무실 이전

7월 23일 11시 30분 정금빌딩 6층 감사예배

'NGO 더멋진세상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를 7월 23일(화) 11시 30분 새 사무실에서 드린다. 이재훈 위임목사가 설교한다. 이전한 사무실 위치는 서울시 서초구 동작대로 214, 정금빌딩 6층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2010년 설립했다.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더멋진마을을 조성, 다음세대 희망심기,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긴급 구호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성도들에게 "NGO 더멋진세상이 총체적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기관이 되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부채탈출119 신청자 상시 모집

홈페이지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 작성

부채탈출119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부채탈출119는 과도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성도와 이웃들을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부채상담사역이다. 학자금 대출, 실직, 실업, 생계비 조달, 과소비 등으로 심각한 부채위기에 처한 청장년이 대상이다.

부채탈출119 재정 상담을 원하는 성도나 이웃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다운로드 작성한 다음, 이메일(james332023@gmail.com)로 보내거나 구글 링크(QR참고)에서 '가계재정상담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상담은 대면 및 온라인 상담으로 2-3회 하고, 경제정의팀 소속 상담위원과 연결된다. 모든 개인정보는 비밀보장 및 보호된다.

문의: 010-7636-3755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27일(토)까지 두란노아버지학교 홈페이지(father.or.kr)나 아이스쿨에서 참가신청 하면 된다.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회비는 12만 원. 문의: 010-2657-1875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오는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9월 4일까지 어머니학교 홈페이지(mother.or.kr) 또는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2-2182-9114

두란노 성경연구학과 '요한계시록'

두란노 성경연구학과 '요한계시록' 강좌가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온라인 강의로 열린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서원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8만 원.

두란노 성경연구학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들' 등을 주제로 한철흠 교수(한국침례신학대)가 강의한다. 문의: 02-2078-3456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 걷는다!

CGN '메시지 트립' 참가자 모집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 걷는 CGN 성지순례여행 '메시지 트립' 참가자를 모집한다. CGN이 기획하고, 천지투어에서 진행한다.

메시지 트립은 총 3차례 그리스와 튀르키예 코스로 진행된다. 1차 여행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영철 목사(국제사도바울센터원장)가 성지를 소개하고 강의한다. 참가비는 353만 원이다. 2차 여행은 10월 14일

부터 24일까지 김동문 선교사(중근동 눈으로 읽는 성경) 저자가 인도한다. 3차 여행은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익상 목사(이스라엘 따라 걷기) 저자가 인도한다. 2-3차 메시지 트립 참가비는 373만 원이다.

메시지 트립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천지투어 홈페이지(www.bibletour.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703-7100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참가자 모집

7월 29일 오후 2시까지 모집 및 서류 접수

'2024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이하 '2024 어!벤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4 어!벤처스는 7월 29일(월) 오후 2시까지 모집 및 서류 접수, 7월 30일(화)부터 8월 12일(월)까지 심사 및 선발, 8월 29일(목) 오리엔테이션, 9월부터 11월까지 비즈니스 리더와의 멘토링, 10월 10일(목) 중간 워크숍, 12월 7일(토) 최종결선 대회를 치른다.

2024 어!벤처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벤처포럼 어!벤처스' 웹진(ventures.imweb.me)에서 참가신청 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법인 설립 5년 미만의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비영리법인 가능)다. 팀의 핵심멤버 1명은 기독교인이여야 한다. 서류를 접수할 때 교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 venture4world@gmail.com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 모집

8월 31일, 9월 7일 여의도 정곡빌딩 4층

청춘클래스 9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청춘클래스 9기는 8월 31일(토)과 9월 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정곡빌딩 4층에서 진행된다.

청춘클래스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한 연애와 결혼을 돕는 사역이다.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는 방법,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들

은 8월 4일(일)까지 네이버 카페 '청춘클래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60명(남녀 각각 3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청춘클래스 9기에서는 개그맨 조래환이 사회를 보고,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가 '크리스천 연애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한다. 김복유 전도사 간증 및 콘서트도 열린다. 문의: 010-5628-887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장로칼럼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을까?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아편전쟁은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무역 수지 문제로 일어났다. 19세기 영국은 청나라에 모직물을 수출하고, 청나라로부터 홍차 등을 수입했다. 그런데 영국이 계속 유출되는 은화(銀貨)를 회수하기 위해 청에 아편을 싣고온 것이 원인이 돼 전쟁이 발발했다. 차(茶)와 아편의 정면충돌이었다. 육류 중심이었던 유럽인의 입맛을 개운하게 해준 게 차(茶)의 역할이었다. 백인들의 육식 문화 해독제가 차(茶)였고, 영국이 수출했던 마약은 중국을 병들게 했다. 지금 미국이 마약으로 병들고 있다. 거리에 마약중독자가 넘쳐나고, 도시가 황폐된 곳도 있다. 부자들은 그런 동네를 떠나 안전한 곳으로 옮겨 가는 추세다. 우리나라도 미국으로 유학 갔던 10~20대가 마약을 접해서 서울 강남 등지에 자리 잡는다는 소식이 들린다. 마약을 막지 못하면 병국(病國)으로 간다.

다행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차(茶) 마시는 문화가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 여럿이 함께 차를 나누며 마음을 달래고, 건강하게 해주는 취미로 여긴다. 차는 각각 맛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품미도 각각 다르다. 마음이 울적할 때 마시는 차, 저녁을 먹고 마시는 차, 여행가서 마시는 차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차풍이다. 우리 선현들은 일찍부터 국화꽃으로 차를 만들어 마셨다. 그 곁에 있으면 향기가 좋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국화가 그윽한 향기를 내뿜듯이 커피 한잔에도 우리는 향기와 먼저 만난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향기와 만난다는 것인지 모른다.

좋은 글을 접하면 그 글에서 ‘향기’가 난다. 무색무취한 예술품에서도 ‘향취’를 느낀다. 향기는 본래의 작용도 있지만, 향이 주는 심리적 작용도 있다. 향기는 새로운 기운을 북돋아 주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심신을 안정시킨다. 그래서 향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을까?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면 ‘사람 냄새’가 나고, 부도덕한 일, 중대한 범죄 현장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향기가, 어떤 이에게는 악취가 된다. 어릴 적 엄마 품속에서 향기가 났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격, 품성, 말씨 등을 떠올리며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향이 있다.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담는 것이고, 상대방의 향이 마음에 담기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진다. 인품(人品)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다. 향기 나는 사람은 지식을 과시하거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 매사 조급하게 행하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향기 있는 사람은 에너지와 같아서 그 기운이 나에게도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향기 있는 사람은 정의와 신뢰, 인덕과 진정성, 올바른 가치관, 자기 성찰과 언행일치를 이룬다. 어떤 일에도 균형감각으로 자기중심을 지켜가며 향기를 내뿜는다. 꽃의 향기는 바퀴지 않지만, 사람의 향기는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기중심적 사고, 나쁜 말투와 성격, 세상적 가치관을 십자가 밑에 던져 버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때 하나님이 많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은 당신의 모든 것이다”(마거릿 대처).

권사칼럼

자연 속에서의 묵상



조은미 권사
(시인, 강동온누리교회)

장맛비가 이름에 걸맞지 않게 봄비처럼 보슬보슬 내린다. 장맛비라면 으레 주야장천 주룩주룩 쏟아지는데, 요즘은 순간 양이 되어 제법 귀염을 띤다. 간간히 쉬어가며 햇빛이 반짝 나기도 하고, 선선한 바람을 선사하는 아량까지 베푸니 숨겨진 속내를 알 수가 없다. 흐린 하늘이 언제 토라질지 그네에 흔들리며 아리송한 회색지대에서 어정쩡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를 해 본다.

파크 골프 치느라 소홀했던 텃밭을 돌아보기로 했다. 주인 발소리가 뜬해진 틈을 타 풀들이 득세하고 있다. 축축해진 땅에 그악을 떨던 풀들이 얼마나 잘 뽑히는지, 한바탕 손끝이 지나간 자리에 토마토, 가지, 고추가 얼굴을 내밀고 숨을 쉬며 허리를 편다. 뒤란에 봉숭아도 탐스럽게 꽃잎이 벌었다. 봉숭아는 언제 보아도 애잔하다. 수줍게 고개 숙인 꽃을 바라보노라면 까닭 없이 서러움이 돈다. 백반이 귀하던 시절 시름한 꿩이풀 뜯어 조금 한호집 넣고 꽃잎을 짓이겨 꽃물 들여 주시던 엄마 모습이 떠오른다. 봉숭아 잎사귀로 감싸 찜찜 처맨 손가락이 행여 벗겨질세라 사로잡을 자기도 했다. 가슴 한편 밀쳐두었던 묵은 그리움이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눈물 나게 뵈고 싶다. 칠십이 훌쩍 넘어도 엄마라는 이름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된다. 멍울진 그리움이 목젢에 얹힌다. 한옥금 봉숭아 꽃잎을 따 백반을 넣고 콩콩 찌어 손톱에 올렸다. 인내를 가지고 한나절이 지나도록 놓아두었다. 추억에 올라탄 유년이 빨강게 손톱에 내려앉았다. 물이 든

다는 것은 서로 닮아가는 것일 게다. 한 집에서 오래 같이 산 부부를 보면 어딘가 둘이 비슷해 보인다. 자연 안에 하나 되어 살다 보니 어느새 자연을 닮아 푸근하고 넉넉해짐을 느낀다. 봉숭아 꽃물이 든 손톱이 정겹다.

이튿날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뜨락을 내려섰다. 안개가 산허리에 걸렸다. 숨이 멎을 듯한 선경에 취한다. 뒤라서 이리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이런 환경을 값없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이감과 감사가 솟는다. 아직 비는 부슬거린다. 어젯밤에 바람이란 녀석 꾀나 해살을 놓았나 보다. 얼치기 농부를 만나 약 한 번 안 쳐준 살구나무에 그래도 용케 몇 알 달려 버티고 있더니 간밤 비바람에 땅에 떨어져 널브러져 있다. 땅에 떨어진 것이지만 익은 살구를 처음 보는 터라 반가웠다. 얼른 한 입 깨물어 보니 달달하고 새콤한 맛이 얼마나 맛난지! 좋은 종자의 살구나무였다. 태생은 귀하게 태어났지만, 그동안 한 번도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나무로 무익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부지런한 농부를 주인으로 만나 제대로 보살핌을 받았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보람을 안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제 구실 한번 못하고 살아가는 살구나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문득 나를 돌아봤다. 아무 뜻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았으리라. 나를 만드신 주인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며 최고의 결과품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주인의 손길 안에 붙들릴 때 보살핌을 받고, 끝까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결실을 맺는 건강한 나무로 보람을 안고 살아가고 싶을 것이다.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삶이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었다.

신앙에세이

인구 위기 시대 새로운 소망, 한국 교회



노규석 목사
(안산M센터)

지난 6월 21일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연일 미디어에서는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뉴스들이 가득하다.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난해 6월,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충북 제천시도 고려인 동포 1천 명을 유치해서 지역 소멸 위기를 타게 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서는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시했고,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E-9)의 규모를 16만 5천 명으로 늘렸다.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숙련기능인력에 제공하는 비자(E-7-4) 전환도 매

년 약 3만 5천 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안산시에는 한 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 초등학교생이 급증했다. 이에 안산시 교육청에서는 안산M센터와 안산동산교회에 ‘경기 이음한국어 교실’을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안산M센터에서는 9개교 출신 22명 초등학교생을 위탁받아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화성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중도 입국 청소년들(중양아시아 고려인 자녀)을 위한 ‘레인보우스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67명이다. 이출산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가까운 미래인 2050년 한국에서 태어날 출생아가 8만 명이 안 된다. 반면 다문화 가정과 고려인 동포 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은 급증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군입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60만 명으로 최고치를 경신

했다.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장기전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적의 고려인 가정들의 국내 이주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이주민과 이주 배경 인구는 한국 인구의 약 5%를 구성한다. 우리 기업과 학교,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미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주민을 인구 위기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보고 있고, 기업들은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본다. 학교에서는 대학 입시에서 경쟁력이 없는 이주민 자녀들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주민과 그 가정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코로나19 이후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가 안산M센터를 찾아와서 ‘어떻게 이주민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까?’ 질문한다. 나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친

구가 되라고 권면한다. 우리의 이웃, 직장 동료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과 친구가 되는 게 먼저다. 친구가 되어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다. 그것이 순리이다.

대한민국을 찾아온 작은 소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환대해서 그의 친구가 된다면,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다시 한번 소망을 발견한다. 그래도 이주민과 그 자녀들에게 다가가는 이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교회 청년들이다. 나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상당수가 크리스천 가정들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꿈꾼다.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도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것을 꿈꾼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과 다문화 아이들이 한 팀이 되어 세계 곳곳으로 나갈 것이다. 이 아이들이 ‘더 큰 대한민국’, ‘온 누리를 품는 모자이크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을 소망한다.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6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사부 • 알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35 W 31st street 5fl, New York, NY, 10001 • 저지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nsaitb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국내 온누리교회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감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연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선재 김성욱 김성용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유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유식
김은혜 김재식 김제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훈 김태환 김태완 김한규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림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영은A 박성영 박성현 박전중
박성준 배행삼 배성우 박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식
신현민 조희재 최승철 손재호
안사뭇을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현교
이윤재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현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영상
정현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람 조현수
진진미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하수 한중희
하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민근홍 박성원 박성훈 신대중
신주용 송예찬 유성하 이상욱
이호준 이형목 임동현 정지훈
조은광 주하늘 황유일
● 부목사(준전임)
권오환 구해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태반
● 국내파견 목사
고범석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민미
김진숙 김중균 김중영 김대주
김혜경 네트라 뉴엘은 峯峯峯
이민영 이상은 배성현 비 켈
서영철 생애배 사가르 양현수
윌리엄 에릭 마이클스 이강혁
이민영 이상은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장광석 정육진 정요한 제인랑
조원익 최정현 최정현 황연신

●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병주 강하람 강현구
고우리 구길모 권대성 권예람
권평화 김가희 김기태 김도태
김동규 김동우 김만순 김미리
김민수 김승희 김예달 김예찬
김요셉 김지선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현정 김홍미 나가노
마사토 히로미 문진영 문정현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훈
박요한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현 방예린 방진아 서연재
서해진 손윤희 송영호 송선애
심은섭 안루택 양현모 윤경덕
이정민 이도일 이웅희 오승희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윤석무 윤준현 윤종연 이나단
이도일 이웅희 이미진 이민규
이선혜 이소라 이시하라 나리코
이예찬 이은미 이재용 이진수
이정민 이주영 이준영 이지영
이창모 이태호 이 한 이형준
이휘영 임정미 임노완 임진숙
장건우 장영주 전미연 전미선
정상원 정성민 정영연 정은영
정장준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우현 조은식 조준기 최규중
최민정 최명훈 최 은 최은영
홍세나 홍슬기 황세라

●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식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두한 권영성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일 김병중 김병철
김병훈 김상섭 김석진

김선택 김수광 김수영 김성목
김 완 김용성 김 김 웅 김용배
김 원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재욱 김재일 김중진 김중성
김종승 김주홍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정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근 문창호
문홍실 문현구 박 공 박방익
박봉래 박성봉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국 박영태 박영배
박용국 박우형 박용현 박찬빈
박대성 박홍국 배 문 배남진
백승웅 백오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서현철
순한기 송만식 송영봉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수권 신현홍
심상달 심재우 심창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우현 양재수
임태진 오성연 우광범 우승규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원영
유재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석우 윤영자 윤영성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기중 이길수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석 이상옥 이영길
이영세 이영철 이영경 이은하
이우곤 이웅대 이창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정근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태환
이한영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이광산 장가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정장태 정경우 정대승
정문태 정문규 정병규 정보현
정승훈 정영연 정영화 정재택
정재현 정현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홍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전영민 최도성 최두린 최 명
최상근 최진성 최창규 최정우
최종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중 한덕중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창정 한형식 함곡기
함선호 허광수 허형석 호종일
홍기영 홍태표 홍병식 홍중철
홍정표 홍해남 홍형욱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 사무장로
강기홍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의 강은철 강중도 강창재
곽병철 고길범 고대이라 곽희중
이현규 권순현 권오섭 권오현
권혁은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동원 김도영 김동우 김동원
김두진 김만순 김병세 김병현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욱
김성준 김성환 김기철 김진호
김성규 김성중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승욱 김신원 김영관
김정원 김정원 김창원 김창원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호 김우호 김이준 김인선
김정원 김경민 김경민 김경민
김종완 김중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하 김지현
김희수 김희주 김희준 나광욱
김철주 김해기 김한주 김형겸
김형석 김형중 김희선 김희선
김화수 김희주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옥 남병현 남상길
남윤향 노하수 나광욱 류기범
남정진 문성찬 문영기 문정식
명영찬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민분기 박덕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철 박성진 박순길 박승우
박명철 박성진 박순길 박승우
박영환 박용권 박용식 박용익
박일규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준현 박지수 박지완 박혜한
박 현 박현규 박형민 박홍선
방찬중 배기영 배병태 배승호
백준신 백준옥 서달석 서명수
서병하 서성준 서광재 서주명
손기철 손기태 손정재 손태용
송기선 송동식 송중환 송호철
신귀현 신동기 신두환 신민호
신 신재영 신철우 신현철
신현숙 신갑식 심천보 심효우
심화돈 안동형 안상훈 양상식
양오 양성훈 양준홍 양준경
양종식 양현영 오 명 오병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택 오이식
용내문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상철 윤석진 윤석주 윤수민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현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현 이상도 이상원
이성권 이정필 이석민 이성진
이성일 이수완 이승배 이신준

이영근 이원장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재광 이재준 이정구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진주
이봉우 이태열 이학일 이혜달
이현규 이홍선 임 훈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채남 임태배
임호열 임지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영 장규환 장문석 장성철
장우진 장정열 전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연식 정영구 정영주
정연식 정영구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용욱 정윤섭
정운오 정원만 정승하 정일영
정재범 정지민 정찬희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정규 조성태 주재환 진종구
차준근 최민철 최봉림 최석민
최성환 최용일 최용재 최주관
최현석 최현주 최호림 최상진
하주현 한동욱 한복규 한상규
한승만 한정현 하 경 하대행
허복만 허영남 허영환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종선
홍우성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성주 황유일

최재영 최해경 최훈희 홍용식
● 반주자
강영우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슬기 김영찬 김은경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민 김지은 김지훈 김지우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희중
남궁진 남민우 남애셀 노보하
노성희 노소라 도은경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현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식 이슬기 이애리 이영환
이애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임현우 정재우 정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호 최숙희 최영권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 해외 온누리교회

●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희 문영재
박신웅 서재범 이길택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조준목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 미주OMA담임목사
김철진 김형철 마크최 박태영
심상현 이민욱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 부목사
김기홍 김병성 김상훈 김성연
김성진 김인숙 김영봉 김진숙
노경호 노형수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경미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정욱
손미경 신기원 심재현 심형진
안성진 양진범 양영기 양창우
유병중 유영순 이경호 이덕주
이미령 이성원 이승윤 이은배
이주영 이정주 이영근 이방철
장재홍 전상현 전인성 전홍철
정동윤 조수정 조정호 최석서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성서
홍세반 홍 정 JoelKim Joe Lee

Michael Lee
●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정욱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원유미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영은 이용기 이은희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병현 정진진
정은숙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최현철 코바야시 메구
하여진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광철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 사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태 성현태 손정래 신술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상현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현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환
최정규 한상훈 허규희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진수 윤창근
윤한돈 김성식 임현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 성가사
고양수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진 박성국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엄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철
정현정 조경화 조요섭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광고

모리타니 아웃리치 소아과 의사 모집
일시: 8월 3일-10일
장소: 아프리카 모리타니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드림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일 낮새 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CMN 사운팀 의료진 모집
모집: 치과(사역 시작 9월)
내용: 매일 낮새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제자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2-3215-3413)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봉사
자격: 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 복지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신청
문의: 우성경 사회복지사(02-794-6100)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온누리교회협의의 현금 메뉴에서 모바일현
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
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세요.
현금메뉴의 안내
입금조현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입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현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현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현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접수: 02-793-2997, 010-4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월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7/12(금) 송파A 오혜란 권사 모친상 고 이영순
7/12(금) 도곡 문보영 집사 모친상, 서초A 문자영 집사
모친상 고 이수진
7/13(토) 관악금천 고 이수진 권사
7/13(토) 관악금천 김삼미 집사 시모상 고 장성자
7/13(토) 성북 박영규 집사 부친상, 가미라 권사 시부상
고 박노영
7/14(주일) 양천 이대우 집사 모친상, 강민정 집사 시모상
고 신홍자
7/15(월) 동대문동광 서상희 성도 부친상 고 서병영
7/16(화) 용산 이성진 성도 배우자상 고 유재희
7/17(수) 동작 김승민 성도 모친상, 박호윤 성도 빙모상
고 장정선
7/17(수) 이수 고 이민기 성도
7/18(목) 양천 최혜옥 권사 배우자상 고 박인철
7/18(목) 가정사역 윤진란 집사 모친상, 이은실 권사 시모상
고 엄태임
7/18(목) 분당A 성기범 집사 부친상 고 성광훈
7/18(목) 강남B 김리자 성도 부친상 고 김용수